

고흥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농수산물 수출 1위’

올 10월까지 1435억여원 기록
김 4658만달러...유자·미역 순
공영민 군수 해외 판로개척 등 성과

고흥군이 올해 10월 기준 농수산물 수출액 9970만 달러(한화 약 1435억여원)를 기록하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수출 1위를 달성했다. 수출 1위 달성의 ‘효자 품목’은 김, 유자, 미역 등이다.

작은 농어촌 지역이 전국 정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고흥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입증했다.

고흥군의 수출 실적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상승세를 이어왔다. 2022년 8521만 달러로 전국 군 단위 6위에 머물렀던 고흥군은 불과 2년 만인 2024년에 1억 1435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국 3위로 급상승했다.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9970만 달러를 기록해 같은 기간 전국 군 단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며 사상 첫 1위라는 새 역사를 썼다.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개척 활동이 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이 올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농수산물 수출 1위'를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0일 인도네시아 자바수퍼푸드사와 고흥 농수산물 500만 달러 수출협약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직접 해외 수출개척단을 이끌고 일본,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협약을 체결하며 고흥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고흥산 김·유자·미역 등 주요 품목이 해외 프리미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했고,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수출 1위 품목은 김으로 수출실적 4658만여 달러에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다. 수출 2위로 중국에 주로 수출되는 유자는 수출액 2729만 달러에 달하며, 1001만여 달러를 기록한 미역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장 중심의 수출 행정이 단순한 판로 개척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흥군형 수출 모델’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성과는 고흥 농어민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라며 “연말까지 반드시 1위 자리를 지켜내 고흥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농수산물 수출의 중심지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수출 전 과정을 행정이 직접 관리·지원하고 농어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고흥군형 수출 모델’을 정착시켜 왔다. 행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매진할 수 있는 구조가 고흥이 전국 1위에 설 수 있었던 핵심 비결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고흥군은 해외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 개발과 글로벌 유통망 확충에 속도를 높여 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뤄 나갈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kwangju.co.kr

광양시 서산어울길 연장사업 녹색 인프라 확충 공모 선정



광양시서산어울길.

광양시는 서산어울길 연장사업(3차)이 도시민의 숲길 복지 확산을 위한 ‘2026년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은 복권기금 수익금을 재원으로, 신체적 약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차에 걸쳐 서산어울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며, 어울길 연장을 요청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3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 분야에 선정돼 총 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시는 기존 어울길에서 서산원터까지 약 1.2km 구간을 있는 노선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데크형 무장애 나눔길과 휴게공간 등이 함께 마련돼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이 평등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보성군드림스타트, ‘가족힐링캠프’ 따뜻한 동행

다문화·취약계층 가족 화합 도모

보성군드림스타트는 최근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힐링캠프’를 운영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캠프는 가족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가 함께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가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첫째 날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올바른 자녀 양육과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부모 교육 프

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체험활동도 함께 운영됐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차(茶) 명상과 힐링 체험이 이어졌고, 자연 속 산책과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드림스타트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라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시가 특별기획한 ‘2025 프라이빗 디너 파티’가 지난날 30일 종포해양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프라이빗 디너 파티’...여수의 밤 즐겼다

관광객 등 200여명 참여 성료

여수시가 가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 기획된 ‘프라이빗 디너 파티’가 지난날 30일 종포해양공원에서 관광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여수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면을 쓰고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경관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며 여수의 밤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이사부크루즈에서 진행된 디너 크루즈에 이어 올해는 여수 밤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종포해양공원에서 디너 파티를 진행해 시

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참가자들이 착용한 개성 있는 가면을 대상으로 ‘베스트 마스크’를 선정해 여수 주요 관광지 시설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김상욱 여수시 관광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여수의 야간관광 매력을 체험했다”며 “앞으로도 여수의 풍부한 관광자원에 리듬을 더해 관광객들이 여수의 밤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국비 40억 확보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선정

순천시가 문체부 주관 ‘2026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면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은 순천시가 토지 매입비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보상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준비에 나선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차례 문체부 등을 방문해 순천시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부지확

보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와 행정 신뢰도를 입증했으며, 이러한 준비가 이번 국비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기반으로 내년 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보상·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남해안 남중권 스포츠·문화 허브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굳힌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시민과 체육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장애인 어울림 축제 350여명 공동체 문화 확산

제10회 곡성군 장애인 어울림 축제'가 지난날 31일 곡성문화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축제에는 장애인과 가족,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가수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하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문화 공연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재할 의지를 북돋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 이기욱 지회장은 “장애인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